

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II



許 重 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무기발달이 어떻게 전략 전술에 반영되어
전쟁에 활용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무기체계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기들이
사용되었나를 알아야 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를 기원전 3000년 부터
서기 800년까지 8단계로 구분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페르시아, 그리스의 무기 발달과 전술의 변화

모 든 인류 활동에서 변화와 진보를 이룬 기
원전 600~400년 기간에, 반(半) 전설적인
연대기의 역사로부터 분명히 신뢰할만한
역사로 이동하였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
안에는 중요한 군사적인 경향들이 보다 분명해졌다.
2가지 경향이 중요한데, 첫째는 기술상의 한계 범위
내에서 분명한 개념들이 무기체계 부분에서 서서
히 발달한 것이며, 둘째는 그 결과로 전술이론과
군사이론이 출현한 것이다).

기원전 400년 정도에 이르르면, 핵 시대의 여명기까
지 지속된 사실로 전쟁이(시대를 설명하는) 주요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무기 자체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사실 2천
년 이상 기간 동안 전쟁 상황에서 연관되는 도구
들과 무기들의 상대적인 약간의 수정만이 있었을
뿐이다. 기본적인 변화는 군대로 하여금 강력한 힘
과 기계적인 노력을 초월하는 정도로 중력과 바람
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현존 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발
전이 이루어졌다. 기원전 6세기 중엽 페르시아의
Cyrus왕은 제국의 군대에 혼련과 규율의 개념을
주입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이러한 개념들이 초기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인식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 활동에 적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점점 중요성을 더하여 갔다.

다루기 힘들 정도의 큰 덩치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는 모든 기동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던 보병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된 것이 주요한 결과였다.

그런데 전투 대형의 형성, 전투전 군대의식 및 종교적 의식 등은 기록 이전의 시대부터 기원을 가질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었다. 점성가와 예언자들의 자문을 받아, 신들에게 제물이 바쳐졌고 승리를 예언하는 징조들이 몹시 갈망되었다.

일장의 연설 후, 군대는 전투를 위하여 정렬되고 장군은 전투를 위하여 전진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것은 군대를 분발시키는 과정으로써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²⁾.

보병부대는 중앙에서, 이륜 전차와 기병 부대는 측방(가끔 전방)에서 평행 대형으로 전진하였는데, 이때 槍手 부대와 弓手 부대들은 주력부대가 적과 수백 야드 접근할 때까지 화력으로 장막을 쳐주었다. 전방과 측방에서 기병과 이륜 전차가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투 대형의 변화는 거의 드물었다.

때때로 한쪽에서 방어하는 적을 강력하게 고착시켰지만, 양쪽에서 보조를 맞추어 전방으로 밀어 부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전투원의 함성과 양측 무기의 충돌음은 무시무시한 소음을 자아내었다.

마지막 순간의 기동은 전선의 위험한 간격을 발생하거나, 이동하는 측방부대로 하여금 화력을 받거나 충격적인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경험상 보여졌다. 그러므로 전술적인 독창성은 적이 불

리한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되기를 강요받거나, 적이 가용부대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10열~30열의 중심을 가졌던 잘 무장된 보병 부대라도 측방과 후방이 약했기 때문에, 전투에서의 통상적인 목표는 적에 대한 측면 포위에 있었다. 전선의 평행 대형을 유지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대형을 유지한 상태로 성공한 몇몇의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대형을 취한 경우는 실패하는 때가 더 많았다.

기병 부대는 특별히 중앙 및 서남 아시아의 광활한 평원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인도와 페르시아를 제외하고는 훈련되고 기동력을 보유한 보병들에게 이륜 전차 부대는 공포심을 안겨 주는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에서 주요 수단이 되지 못했다³⁾.

페르시아의 Cyrus왕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근소한 그리스 용사가 투구, 흉갑, 정강이받이, 방패, 창 등을 물려받고 있다



기 획 연 재

手 부대들에 비하여, 더 민첩하고 재치 있는 특별히 숙련된 궁수 부대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사용하여 초기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Cyrus왕은 적들이 여전히 주로 의존했던 기마 부대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에게도 기병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페르시아 군은 신속하게 말에 적응하였고 곧이어 페르시아 군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중기병 부대와 말 탄 궁수 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스의 산악지형은 기병 부대의 기동에는 부적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인은 북부지역의 Thessaly와 마케도니아 지방의 평지를 제외하고는 그 무기(중기병 부대와 말 탄 궁수 부대)를 대체로 무시하였다⁴⁾.

그리스 반도의 나머지 지역인 에게해의 섬과 이오니아 해안 지대를 연하여는 주 전투수단인 phalanx가 더딘 속도로 개선하였다⁵⁾.

훈련된 중보병의 집합체인 팔랑스는 8~16명의 중심을 유지한 채, 전투시 긴 전선을 유지하였다. 팔랑스의 개인 병사는 hoplite라 불렸는데,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있었다. 이들은 스포르나 전투를 통하여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였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8~10피트 길이의 미늘창이었다.

팔랑스가 대형을 유지할 때에는, 홉라이트가 지녔던 단검은 칼집에 들어 있었다. 홉라이트는 투

구·가슴보호대·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원형 방패(hopon)를 把持하였다. 홉라이트는 전투시 전방 대열에서 창을 적에게 겨누었는데, 그들은 적의 화살로부터 장벽을 형성한 바로 후방의 병사들로부터 어깨를 보호받은 채 대형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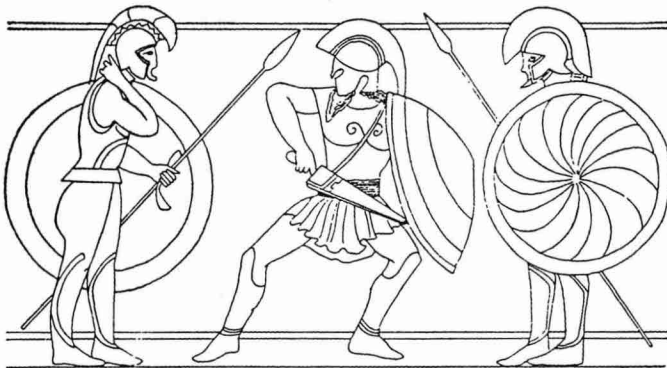
팔랑스와 팔랑스로 구성된 단위 부대들은 전투대형에서 제한된 기동밖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경부대들이 이동할 수 있는 좁은 간격만을 형성한 채, 전투시 고착된 그들의 대형은 길고 단단한 전선을 유지하였다. 굴곡 지형으로의 기동은 치명적인 부대간의 간격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는 이용 가능한 평지상에서 치러졌다.

홉라이트는 그리스 국가의 자유 시민계급인 상류 및 중류 계층인들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보잘것없이 무장한 경부대원인 psiloi는 훈련과 규율면에서 처져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하류 계층인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병들이었다.

행군시 또는 전투시 팔랑스의 측방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으로 열등한 기병 부대가 있었다. Crete와 Rhodes에서 유래된 궁수와 槍手 부대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엄격한 훈련과 뛰어난 신체적 조건 외에, 그리스의 홉라이트는 기민하고 지성적이며 자유시민 계급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독립국가 소속이라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군사적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질적 요소는 지성적 요소면에서 전술적 훈련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수용하였을지라도,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조직화를 이루는 데에는 의구심을 주었다⁶⁾.

이 기간 동안 발전했던 군사술 중 築城術은 가용한 수단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발전하였으나, 포위술은 그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기습, 기만 또는 내부분열에 의한 밀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성으로 보호된 도시와 요새는 飢餓 외의



Greek hoplites

방법에 의하여 파괴당하지 않았다⁷⁾.

배를 전쟁 목적에 사용한 것은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에 살았던 해양인들에게는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러나 상선을 군대와 보급품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원전 7세기 이전까지 많은 제한이 있었다. 길이가 짧고 폭이 넓었던 돛과 노를 장착한 배는 본질적으로 육상 전투력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⁸⁾.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700년 무렵 최초로 본질적인 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배를 고안하였다. 이 배는 빨랐고 노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전형적인 상선에 비하여 길이가 길었고 폭은 좁았다.

그리스인, 특히 아테네인이 페니키아의 군선을 개량하여 육상 혹은 해상 전투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도의, 기술상의 완벽함과 정교함을 해상 전투 상황에 도입하였다. 아테네의 군선(trireme⁹⁾)는 길이가 120피트로 길었고 선고가 낮았으며 폭은 15피트로 좁았는데, 배 양옆의 많은 노 열에 위치했던 노수들이 각 개별 노 열에 설치된 3단의 노를 저어 추진력을 더했다는 점에서 명성을 얻었다.

속도와 衝撃力 및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의 안전성, 안락함, 화물 적재능력과 항해거리 등은 고의로 무시되었다. 독특했던 노 외에 trireme는 예비 전투력 수단으로 두 곳의 갑판에 水兵을 탑승시켰고, 전투시에 trireme는 150명의 노수가 배를 추진하였다.

군선은 장기간의 항해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운반할 수 없었으므로, 보급 및 수송을 위하여 소함정을 거느렸다. 폭풍우에 약했으므로, trireme 선단은 폭풍우를 만날 때에 해안으로 피하기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운항하였고, 가능하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기간의 항해는 기피되었다.

trieme의 주요 무기는 뱃머리 전방에 10피트 길이로 돌출된 수평선 높이에 있었던 철제 衝角이었



그리스 전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기병

다. 이 충각이 다른 배의 측면에 박히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으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그리스 군선은 적선 옆으로 배를 대어 적선에 올라 전투하는 고전적인 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아테네의 수병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우세한 항해기술과 속도 및 기동에 의존하였다. 적선의 측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충격타를 가할 수 있는 순간적인 기회가 없을 때에는, 아테네 군선은 적이 예상치 못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마지막 순간에 노를 올려 정지하여 놀란 적선을 파괴하였다.

이런 전술을 채택할 수 없었던 적은 문자 그대로 쪼그린 오리였고 아테네 군선에 의하여 유린되었다. 아테네의 적은 아테네 군선의 뛰어난 항해 기술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르면 경제적 및 兵站의 고려요소가 대규모 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규모 육상 전투력을 보유했던 페르시아 군에게는, 육상 및 해상에서의 습격과 공격에 취약

할 수밖에 없었던 수천 마일 가량 신장된 兵站 및 通信軸線의 유지가 문제였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및 내부적인 전쟁을 치렀던 작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는 다음의 2가지 사항이 문제되었다. 첫째, 상대적으로 복잡했던 그들의 사회는 자급자족적이지 못했으며, 여러 도시국가들은 평시와 전시에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 너머에 위치했던 보급 기지에 의존해야 했다.

둘째, 몇몇 도시 국가들의 군사적 안보는 막대한 부가 소요되고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인적 자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운영·유지될 수 있었던, 극도의 고비용이 소요되었고 상대적으로 복잡했던 무기 체계(trireme 함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들의 연구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거 있고 치밀한 연구를 실시하여 전쟁의 실제, 심리적인 요인, 군사지도자의 실제 및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그가 이해한 것을 기술하였다.

■ 전례 2(기원전 546년. Thymbra 전투)

기원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한 페르시아는, 기원전 559년 왕자 Cyrus의 지휘하에 메데스의 Astyages 왕에 반기를 들고 독립하였다. Cyrus 왕의 초기 목표는 기원전 559년~550년 기간에 실시한 메디아 정복을 공고히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547년, 리디아인들이 Croesus 왕의 지휘 아래 Halys 강을 건너 페르시아-메디아의 영역에 속하였던 Cappadocia 지방을 공격하였다. 그



밀집대형 장갑보병의 전투 모습이 도자기에 새겨져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주목할만한 발전은 전쟁과 전쟁 현상에 관한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기원전 5세기에 갑자기 이루어졌다.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에 의하여 저술된 최초의 역사서는 의도적으로 군사사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군사적인 사건들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대 중국에서는 孫子が 『孫子兵法』¹⁰⁾을 저술하였는데, 그 책에서 손자는 오늘날의 학자와 군인

들의 공격 의도는 Croesus 왕의 이복 동생인 Astyages에게 메디아의 왕좌를 되찾아주고, 페르시아의 메디아 정복을 방해하는 데에 있었다.

Croesus 왕은 페르시아와 대항하기 위하여 칼데아, 이집트 그리고 작지만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었다. 기원전 547년, 페르시아의 Cyrus 왕이 리디아의 Croesus 왕과 접전하기 위하여 이동하자 Croesus 왕은 Halys 강을 건너 철수하여 페르시아와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였다.

수도 Sardis에서 Croesus 왕은 기상이 호전될 때를 기다려 페르시아로 진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을 동맹국들에게 보냈다. 페르시아의 Cyrus 왕은 초반에 5만 명 규모의 군대¹¹⁾를 리디아의 수도 Sardis로 파견하였다.

리디아의 Croesus 왕은 페르시아 군보다 더 규모가 큰 동맹군을 급히 재집결하여, Thymbra 평원 근처에서 페르시아 군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사이러스 왕은 그의 군대를 側翼을 유지한 형태로 대형을 전개하였는데, 이 대형은 전투시 통상적인 평행 대형으로부터 예외적인 것이었다.

사이러스 왕은 페르시아 군을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5개의 대형으로 나누어 중심 깊게 배치하였다. 측익은 이룬 전차·기병대·정에 보병 및 새롭게 편성된 낙타 부대 등으로 보호되었는데, 전방을 향하여 직각의 대형을 유지하였다.

사이러스 왕이 예측한대로 리디아 군의 측익은 페르시아 군의 새로운 대형을 포위하기 위하여 안으로 기동하였다. 리디아 군의 측익이 회전하자, 기동하는 날개의 軸 근처에서 간격이 발생하였다. 페르시아 군의 궁수와 창수 부대들이 머리 위 너머로 쏘는 효과적인 화력에 의하여, 리디아 군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리디아 군은 페르시아의 사각 대형 안에 고착되었다.

이 때 사이러스 왕은 공격을 명령하였다. 페르시아 군의 측익 부대는 리디아 군의 와해된 날개를 강타하였는데, 얼마 후 곧 페르시아 군의 기병 부대가 날개 축 근처에서 발생한 간격을 통하여 밀려들어 가자 삼시간에 리디아 군은 패주하였다. 사이러스 왕은 추격하여 마침내 Sardis를 함락하였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포로들을 관대하게 대우하였다.

이후 기원전 545년~539년에 사이러스 왕은 동부의 고원 지대로 관심을 전환하였는데, 이 지역은 메디아에 명목상으로 복종을 받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독립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몇

년 내에 사이러스 왕은 Parthia, Sogdiana, Bactria 및 Arachosia 지역 전체를 재정복하였다¹²⁾.

기원전 521년에 즉위한 Darius 왕의 천재성에 기초한 현명하고 빛나는 조직적인 통치에 의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안정을 확고히 하였다. 여러 피지배 민족들이 독립을 되찾는 데에 페르시아의 내부 동요를 이용하였다.

Darius 왕은 기원전 521년에서 519년 사이에 이 반란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봉쇄하였고 그의 나머지 통치 기간은 제국을 확립하는 데에 사용하였다¹³⁾.

기원전 511년에 남동 유럽에 대한 공격을 실시함에 있어, Darius 왕은 다음의 3가지를 목표로 삼아 남동 유럽에 대한 원정을 직접 지휘하였다. 첫째,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계속적으로 병합하기 위하여 Thrace에 기지를 구축하고, 둘째, 페르시아에서 Thrace까지 오고 가는 통신 축선을 보호하며, 셋째, 초원 지대의 스키타이 부족의 후방을 공략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정은 신중하게 준비되었고 제국의 전지역과 일부 그리스 용병들이 동원되었는데,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되었다¹⁴⁾.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질러 부교를 설치하고 유지한 후, 해군은 흑해의 서부 연안을 순찰, 감시하였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가설된 부교를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남겨둔 채, Darius 왕은 식량을 현지 조달하면서 북쪽으로 수백 마일을 계속 진출하였다. 스키타이 기병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페르시아 군과 정면으로 전투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페르시아 군대를 계속 괴롭혔다.

2개월 이상 별 소득 없이 군비만 낭비된 행군 후에, Darius 왕은 페르시아 군의 전방부대로 하여금 스키타이인들과 접촉을 유지하게 한 후 다뉴브 강으로 군대를 이동하였다.

그러나 스키타이인들은 다리우스 왕 통솔하의 페

르시아 군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할 동안에 다뉴브 강 남부 지역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Thrace와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페르시아의 군사 체계, 기원전 500년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적 및 정치적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만큼 사이러스 왕의 천재성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다리우스 왕의 혁신 정책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강되었는지의 문제는 불명확하다. 다리우스 왕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났었던 사이러스 왕이 아마 체계를 확립하였고 다리우스 왕이 그것을 완성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체계의 기본 토대는 페르시아인들의 정신력, 군사 기술 및 인적 자원의 풍부함이었다. 중요한 무기는 기병 부대와 보병 부대가 효과적으로 운용했던 활이었다.

적이 전방에서 페르시아군의 보병 궁수 대부대에

의하여 완전히 와해되거나, 적의 측방이나 후방으로 기병 궁수 부대가 돌진할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페르시아인은 백병전을 회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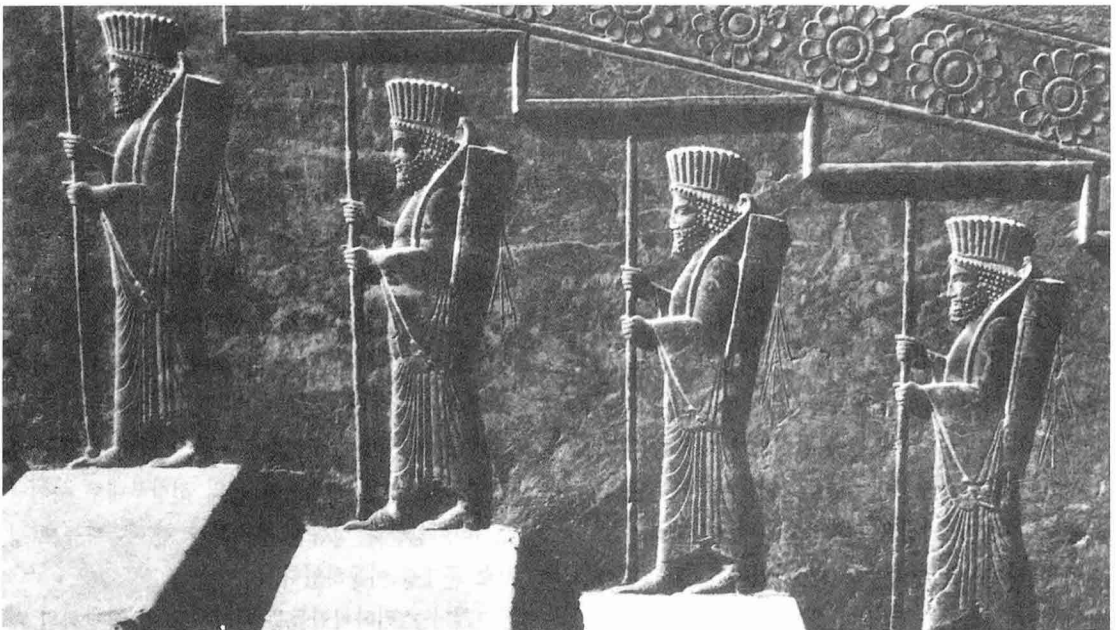
페르시아 군은 모든 지형 조건에 적용되는 전투 양상에 적응하는 데 아주 능숙하였다. 페르시아인은 리디아인 槍騎兵이 가하는 충격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들의 기마 전술에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피지배인들은 군사적 의무를 제공할 의무를 졌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주둔군은 원칙적으로 타 지역 출신인(다수의 그리스 용병을 포함하여)으로 구성되었는데, 언제나 페르시아 출신 分遣隊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국의 원정군은 언제나 다수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정복지역에 대한 관용 정책의 영향과 지방자치를 허용하면서 신중하게 관리된 정책의 영향으로, 페르시아인들은 이들 여러 민족으로부터 놀랄 만큼 고도의 충성을 받았다.

제국은 20여 개의 지방 내지는 관구로 나누어 있었는데, 각 지역은 신뢰할만하고 유능한 관리에 의

다리우스 1세의 경호원들. 당시 그리스에 대한 페르시아의 위협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하여 다스려졌다. 각 관구에서의 주요 군사 주둔군은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 명의 장군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방에서의 위험한 힘의 집중 현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국의 법정에는 황제의 눈이라 불린 감독관 1명이 모든 지방의 활동에 관한 감독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복잡하였으나 다루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던 통제와 균형 및 감독의 조직은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한 통신체계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註

- 1) Dupuy & Dupuy, 앞의 책, p.16.
- 2) 전쟁에 임하기 전,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神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중국의 胛骨文도 이러한 용도에서 비롯되었고, 로마의 야누스 신전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시대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668년 나당연합군의 대 고구려 평양성 공격전 金庾信이 입산하여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발견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天子가 출전하는 장군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六韜』 龍韜 立將에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에 변란이 있으면 임금은 正殿을 피하고 장수를 불러 조서를 내려 “사직의 안위가 오로지 장군에게 있다. 이제 某國이 배반하여 복종치 않으니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를 응징하라”고 하고, 장수는 명을 받고서 太史에게 명하여 짐을 치게 하고 3일 동안 太廟에 가서 靈龜를 태워 길일을 택하고 斧鉞을 받는다. 부월을 줄 때는, 군주와 장수가 宗廟에 들어가 군주는 西向, 장수는 北向하여 부월을 주면서 “위로 하늘에, 아래로 연못의 깊은 곳까지 장군이 제어하라. 虛를 보면 나가고 實을 보면 멈추고, 적을 가볍게 보지 말고, 명을 받은 것을 중히 여기고 죽음을 무릅쓰지 말고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변설로써 필연을 삼지 말고, 병졸이 앉기 전에 앉지 말고 먹기 전에 먹지 말고 寒暑를 같이하라. 이렇게 하면 사졸이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할 것이다”하면, 장수는 畝權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허락 받아 떠난다.
- 3) 앞 시대에 주요 무기로 사용된 이륜전차의 퇴보는 무기 발달사 및 전술사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였다.
- 4) 한반도와 그리스의 지형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산악 지형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였다. 따라서 그리스 지역에서 발달된 무기 및 전술은 한반도의 그것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 5) 그리스 팔랑스에 대하여는 국내에 육사 및 3사의 전쟁사 교재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이 소략하여 Dupuy & Dupuy, 앞의 책, p.17에 기술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 6) 키건 저, 유명진 역, 앞의 책, pp.356~361에 의하면, phalanx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軸(roller)이며, 손가락(finger)과 그 어원이 동일하다고 한다. 이것은 팔랑스의 나란히 서 있는 병사들의 창이 손가락처럼 나란히 정렬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7) 동양의 『孫子』 謀攻篇에서도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故上兵伐謀 其次 伐交 其次 伐兵 其下 攻城”라 하여 攻城戰을 가장 下級の 用兵術이라 지적하고 있다.
- 8) Dupuy & Dupuy, 앞의 책, pp.18~19.
- 9) 키건 저, 유명진 역, 앞의 책, p.368 참조.
- 10) 『孫子兵法』은 始計, 作戰, 謀攻, 軍形, 兵勢, 虛實, 軍爭, 九變, 行軍, 地形, 九地, 火攻 및 用間 등 1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Dupuy & Dupuy, 앞의 책, p.20에 의하면, 크세노폰의 Cyropaedia에 기록된 20만 규모의 4분의 1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술하였다.
- 12) 이후 사이러스 왕은 기원전 539년~538년에 칼데아에 대한 정복하고, 기원전 537년~530년에는 동부 방면의 遠征하여, 이집트와 스파르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기 전에 동부 방면에 대한 지배를 완성하고자 결정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인더스 강 서부 지역을 정복하고, Jaxartes 강의 북부 지역까지 이르렀다. 이 곳에서 사이러스 왕은 Masagetae와의 전투 중 사망하였다.
- 13) Darius 왕은 자신의 權威가 공고하게 확립된 이후에는 여러 戰域들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더스 강 유역 작전들과 중앙 아시아의 파미르에 이르는 북부 지역 작전, 그리고 스키타이인들에 대한 카스피해 동부 스텝 지역의 작전들을 감독하였다. Darius 왕의 장군들은 소아시아의 동부 및 아르메니아를 정복하였고, 코카서스 산맥의 정상에 따라 제국의 북부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 14) Dupuy & Dupuy, 앞의 책, p.21에 의하면, 이 원정에 동원된 전체 병력은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700,000명의 10분의 1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